

# “현장 큐레이팅 경험, 작품제작 이해 큰 도움”

2017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성용희 감독과 큐레이토리얼 어시스턴트 3명

미디어창의도시 이끌 인재 양성  
도록 제작·작품 설명...행사 진행  
“학교 이론 공부와 많이 다르네요”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있다. 참신하고 개성있는 전시를 기획할 큐레이터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시 큐레이션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현장’ 만큼 좋은 경험은 없다.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이 올해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미디어 아트에 관심있는 젊은이들을 기획과 운영에 참여시켜 축제를 ‘함께’ 이끌어 가도록 하는 프로젝트다. ‘미디어 창의 도시’ 광주를 이끌어갈 미래 인재를 키우는 생각도 담았다. 지난 8월 진행된 ‘큐레이토리얼 어시스턴트(미디어아트페스티벌 운영원)’ 교육에는 13명이 참여했고 성용희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예술감독을 비롯해 조민화(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 학예사) 씨 등이 강의를 진행했다.

12월1~3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리는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에는 과정을 통해 선발된 3명의 큐레이토리얼 어시스턴트가 함께한다. 전시 준비가 한창인 성용희 예술감독과 문두성 큐레이터, 참가자들을 만났다. 참여 작가의 작업을 돕고, 도록에 글을 쓰고, 도슨트로 작품설명도 하게 될 이들은 ‘새로운 출발’ 앞에 설려는 모습이었다.

“지역에 기획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 아쉬웠죠.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며 코디네이팅 작업을 배우면 큰 도움이 돼요. 특히 미디어 아트 향후 계층이 새롭게 생긴다면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연결고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했죠.”

성감독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예술을 대하는 젊은이들을 통해 오히려 제가 많이 배웠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이론을 배우기는 하지만 현장에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 아쉬웠어요. 미디어 아트에 대한 이론 공부도 하고, 참여작가 스튜디오도 하며 많이 배웠어요. 도슨트로도 참여하게 되는데 작품에 대해 단순히 외우기 보다는 체계적인 공부를 통해 작가에 대해 알아가며 준비하는 과정이 즐거워요.”

대학에서 큐레이션을 전공하는 박정서(조선대 큐레이터 학과 4년)씨는 이번 참여가 정말 좋은 경험이라고 말했다. 조화진(전남대 미술이론과 2년)씨는 최성욱 작가의 신작 작업에 참여했다.



오는 12월1일부터 3일까지 열리는 2017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을 이끌 성용희 예술감독, 문두성 큐레이터, 이해정, 조화진, 박정서씨(앞줄 오른쪽부터 시계 반대방향).

“처음엔 막연한 두려움과 호기심으로 과정에 참여했어요. 학교에서 실기와 이론 전공 사이에는 갭이 있어요. 저는 이론 전공이라 작품 제작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이 별로 없었어요. 작가의 마인드에 대해서도 거의 몰랐죠. 이번 참여가 작품 제작에 대한 이해 등에 큰 도움이 됐어요.”

법학을 전공한 이해정(순천대 4년)씨는 오랜 고민 끝에 큐레이터로 진로를 정하고 혼자서 책과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가며 공부했다. 그녀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수박 겉핥기였다면 도록에 글을 쓰고 이론 공부도 하면서 이제 수박 씨 맛 정도는 본 것 같다”며 웃었다.

미디어 아트에 관심이 있었다는 박정서씨는 “미디어 아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쩌면 순수회화 장르보다 친숙할 수 있다”며 “실속에서 늘 영상매체와 접하고 있어 오히려 친숙하고 호기심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조화진씨는 초등학교 때 처음 미디어아트 작품을 봤던 기억을 이야기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6학년 때 엄마랑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백남준의 ‘다다익선’을 봤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웬지 어렵고 무서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미디어 아트 작가는 공학적인 매커니즘을 알고 철학적 사고까지 갖춰야 한다는 사실도 이번엔 알았어요. 예술과 기계의 경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됐어요.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욕도 생겼습니다.(웃음)” 세 사람에게 미디어 페스티벌 참여를 권하는 초대말을 부탁했다.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인공지능, VR, 드론 등 새로운 매체로 구현되는 예술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예술과 기술이 주고 받는 모습, 새로운 장르, 앞으로의 예술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에 오세요.”(박정서)

“처음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맛있든 맛없든 ‘어? 이게 뭐지’하게되는 게 있잖아요. 이번 전시에 오시면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기계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하면서요. 인간에게만 한정돼 있는 어떤 것들의 한계를 깨부수는 현장이라고 할까요.”(이해정)

“10대, 20대에겐 인스타그램의 ‘인증샷’ 찍기 좋은 전시예요.(웃음) 일단 오시면 미디어 아트를 알게되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조화진)

문두성 큐레이터는 “우리가 극장이나 놀이공원 갈 때 영화이론이나 놀이기구의 물리적 역학 관계에 대해 연구해 가지 않는다”며 “다양한 아트렉션을 즐기며 편안하게 미디어 아트를 접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용희 예술감독도 “이번 전시작 중에는 재미있고, 흥미롭고, 신기한 작업들도 많다”며 “즐겁게 관람하시고 여기에 생각과 고민들도 조금씩 해 보신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공간-생명력’

## 양림미술관 서양화가 강남구 초대전

12월 10일까지

서양화가 강남구 작가는 올 한해 바쁜 게 움직였다. 순창 옥전골미술관에서 그림 인생 30년을 돌아보는 초대전을 연 데 이어 서울 아트센터 갤러리에서도 개인전을 개최했다. 오는 12월 10일까지는 양림미술관의 초대전을 받아 ‘강남구 작품전’을 연다. 양림미술관 전시는 1991년 첫 개인전을 가진 이후 그의 30번째 개인전이기도 하다.

미술관 지하와 1층 2개 층을 사용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모두 50여점을 선보인다. 근작들을 전시한 1층 공간은 화사하다. 젊은 시절, 추상작업에 몰두하던 그가 무기력증에 빠졌을 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부여한 게 바로 ‘자연’이었다. 그 중에서도 화사한 꽃들에 마음을 빼앗긴 그는 이후 줄곧 꽃을 소재로 작업해왔다.

지하층에는 추상화와 풍경 등 초창기 작품들을 전시, 그의 작품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조선대 미술대학과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강 작가는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광주시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영호남 대작전’ 등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했다. 문의 062-675-700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대금연주단 ‘여울림’ 목요상설공연

내일 빛고을국악전수관

대금연주단 여울림의 목요상설공연 ‘동행’이 오는 30일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대금연주단 여울림(단장 채광자)은 한국 전통예술의 전승 보급을 통해 전통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연령과 계층 지역의 화합에 힘쓰며 전통 음악을 발굴 연구해 온 대금 연주 단체다. 이들은 대금을 통해 민중 예술의 숨결을 지켜온

자부심으로 우리 가락의 향기를 널리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날 첫 무대는 표정만방지곡 중 ‘삼현도드리’, ‘염불도드리’, ‘타령’으로 꾸며진다. 이어 소리란 강보경의 ‘심청가’ 중 ‘젓동냥 대목’, 고영란의 ‘해금산조’, ‘서용석류 대금산조’가 펼쳐진다.

또, 다양한 영화음악과 민요 ‘금강산 타령’, ‘내 고향 좋은시구’, ‘진도아리랑’ 등을 준비했다. 무료관람. 문의 062-350-4557. /전은재기자 ej6621@

## “인간×기계 시스템”...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12월 1~3일 빛고을 시민문화관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12월 1일부터 3일까지 빛고을 시민문화관 지하2층 전시장 등 빛고을시민문화관 일대에서 ‘인간×기계 시스템’을 주제로 ‘2017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페스티벌에서는 주제전과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작가교류전을 포함해 9개국 작가 33명이 참여, 영상·설치·홀로그램·VR·드론 등 다양한 첨단 기술장치를 현대미술과 접목시킨 27개 작품을 선보인다.

개막공연은 오는 12월 1일 오후 6시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공연장에서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과 전통타악그룹 ‘얼쑤’의 융복합 미디어 공연 ‘더 오케스트라\_두개의 현실’을 선보일 예정이다.

본 전시에서는 5개국 작가 22명의 19개 작품을 선보인다. 백남준 작가를 비롯해 영국 다리아 마틴, 덴마크 비디오아름 등 국내외 미디어 아티스트가 참여한다. 프랑수아 리옹 등 유네스코 창의도시 작가 교류전에서는 로지 그림 마이어의 작품 ‘Exhy(2015)’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12월 2일에는 ‘4차 산업혁명, 미디어아트와 미래도시’



백남준 작 ‘TV부처’

를 주제로 ‘2017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정책포럼’이 열린다. 문의 062-670-7492. /김미은기자 mekim@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송년·신년모임  
지금 예약하세요!

지난 30여년, 광주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모임을 정성껏 모셔왔습니다.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아리랑하우스**에서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광주맛집 since 1981 36년을 고객과 함께 지킴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